

姜賢旭 환경부장관 초청 에너지 관련인사 간담회

環境親和的 에너지 이용과 大氣政策 方向 제시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5월 8일 인터 컨티넨탈 호텔 오키드룸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에너지관련 분야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姜賢旭 환경부 장관을 초청하여 「에너지업계 관련인사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에너지협의회 李宗勳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제 공해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찾아야 하며, 인구증가와 산업화의 진전이 에너지의 수요 확대를 동반하게 되어 이로 인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이러한 역기능을 극복하고 환경과 에너지산업의 공존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초청연사로 참석한 姜賢旭 환경부 장관은 “環境親和的 에너지 利用과 大氣政策



方向”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석유 등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태양열, 풍력, 소수력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의 투자 확대를 통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산업 및 자동차용 연료 품질 개선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비중 감소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 및 에너지 저소비형 공정 개선추진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대기오염 최소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에너지 소비급증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산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회원사 실무부서장 초청 무주양수발전소 견학

회원 상호 협력증진 및 유대강화 도모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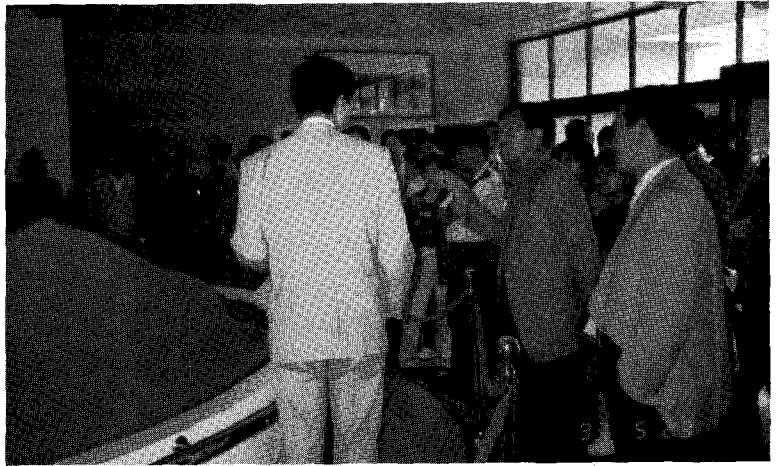
간에 걸쳐 회원사 실무부서장 30여명을 초청하여 전북 무주

군 적상면에 소재한 무주양수발전소를 견학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력, 석탄, 석유, 가스등 각 분야별로 구성된 협의회 회원사 실무부서 장들이 산업현장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상호협력을 통한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무주양수발전소 홍보 전시관을 둘러 보고 지하발전소와 상부댐저수지를 직접 견학하였으며, 발전설비와 전력생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업현장 견학이 끝난 후 가진 세미나에서는 운맹현 한전 전력연구원 부원장을 초청하여 전력사업의 略史와 現況, 장기전력 수급계획 및 전력기술의 개발등 전력산업 전반에 대해 특별강연이 있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전력산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도 가졌다.

행사 다음날 참가자들은 덕유산 등반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를 돈

독히 하고 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힘찬 전진을 다짐하였다.

한국에너지협의회에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회원사 산업현장 견학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범에너지계의 공동체 의식고취와 회원사 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세계에너지회의(WEC) 아·태지역 포럼

통상산업부 한준호 실장 등 20여명 참가

지난 4월 22~24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WEC 아태지역 포럼에 한국에서는 통상산업부 한준호 자원정책실장, 정근모 前과기처장관 등 21명이 참석하였다.

“東北亞지역 에너지 협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한준호 실장은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 및 환경문제 해결

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수적이거나 현재 에너지기술, 자원탐사 및 개발, 환경보존을 위한 공식적·제도적 협력장치가 없으므로 WEC의 후원하에 「東北亞 에너지기구」(Northeast Asia Energy Agency)설치”를 제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①에너지자원 부국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역내 국가간 합작투자 확대, ②역내 국가간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 ③에너지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연설내용은 본지 WEC 북경 포럼 리포트 참조)

“亞태지역의 新에너지 기술”(New Energy Technology

for Asia Pacific)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기초연설 등 전체회의와 석탄, 전력, 석유·가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개발 및 자금조달 등 5개의 기술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5개의 기술세션에서는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자원부국인 중국과 다른 亞太지역 국가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사용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① 에너지개발 및 자금조달 세션 : 아태지역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보급 및 투자에 필요한 지역협력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었다. 특히 각국은 중국의 에너지생산 설비투자에 기업들의 참여가 활

발하였으나, 우리는 저조한 실정이었으며,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으로 자본과 기술이전 분야에서 개도국에 유리한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신재생에너지 세션 : 중국의 경우 광활한 국토에 지방농촌까지의 電化사업은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풍력발전 지열발전 등을 선택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며, 아직까지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통제하에서 경제성 개념을 떠나 집중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 온 결과 상당한 기술발전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③ 전력 세션 : 발전효율향상과 환경친화적 발전연료 공

급확대 방안으로 석탄의 가스화 이용과 원자력 발전의 확대보급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축적된 원자력 발전기술의 해외기술이전과 발전소 건설에의 참여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였다.

④ 석탄 세션 : 석탄에너지의 장래는 청정석탄기술이 얼마나 사용될지의 여부에 달려 있지만, CCT기술은 장치기술이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각국의 연구수행의 최대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CT의 기술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초단계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필연적으로 CCT의 기술도입이 예상되므로 대규모 연구는 다른 외국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정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 참가자들은 관련분야 세션에 골고루 참석하였으며, IAEA 전풍일 국장은 "원자력 에너지개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력분야 세션에서, 에너지기술연구소 정현 박사는 "한국의 석탄생산 및 이용 관련 환경대책"을 주제로 석탄분야 세션에서도 각각 발표를 하였다.



수송 및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방안 세미나

가격인상과 국민의식 전환 필요 강조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전력공사 별관 소강당에서 “수송 및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한전 등 회원사 및 관련기관에서 9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권영무 부회장(한전 부사장)과 신정식 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각각 개회인사와 환영사를 하였다.

최기련 교수(아주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문영석 석유정책연구팀장(에너지)

연)은 “수송부문 석유수급 전망 및 분석”, 박상동 책임연구원(에너지연)은 “환경친화적 건물기술과 보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어 고정식 에너지관리과장(통상산업부), 심수섭 기술이사(에너지관리공단), 이원철 이사(금호전기), 김태유 교수(서울대), 김종덕 절약팀장(에너지연), 김애경 부장(시민의 모임) 등 6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발표를 하였으며, 일반 참석자 중에서 김덕지 본부장(한국원자력문화재

단), 이병직 회장(한국도시가스협회), 안설호 과장(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토론하였으며, 근본적인 차유책으로는 국민의식 전환이 강조되었다.

또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원자력 이용과 건물수명 연장, 물류체계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의 에너지산업 1997-국제화와 구조조정

에너지 정책자료 단행본 발간 배포

한국에너지협의회는 개방과 자유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에너지업계의 대응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5월 “한국의 에너지산업 1997-국제화와 구조조정”을 발간하여 회원사 및 관련기관 인사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자료는 지난해 발간한 바 있는 “한국의 에너지산업과 정책” 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편집하여 제1부 국내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전망, 제2부 OECD 가입과 국내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제3부 국제에너지시장 변화와 국내 에너

지산업의 대응방향으로 구성하였다.

최기련 교수(아주대), 안병훈 교수(KAIST) 등 16명의 전문가가 분야별로 기고한 우수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